

# 문인화 작가의 참여 동기 및 조직 문화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현주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 Influence of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organizational culture of the literati painting artist on life satisfaction

Hyunjoon Lee

Department of Culture and Arts Contents,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문인화 작가의 참여 동기 및 조직 문화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 연구 대상은 서울시 문인화 작가 1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한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유문인화 작가의 참여 동기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참여 동기의 하위 요인인 활동 지향, 학습 지향 요인은 삶의 만족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목표 지향 요인은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인화 작가가 지각한 조직 문화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조직 문화의 하위요인인 개발 문화, 합리 문화 요인은 삶의 만족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계 문화, 위계 문화 요인은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인화 작가의 참여 동기 하위요인인 활동 지향과 학습 지향 요인과 조직 문화 하위 요인인 개발 문화, 합리 문화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문인화 작가의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Muninwha writers' participation motivation, organizational culture, and life satisfaction. The subjects were 117 writers of Seoul poems. Frequency, reliability,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22.0 program, an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First, analyzing the effect of participation motives on life satisfaction, the sub-factors of the participation motive, such as activity-orientation and learning-orientation, had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However, goal-oriented factor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life satisfaction. Second, examining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life satisfaction, development culture, and rational culture factors which are sub-factors of organizational culture, positively affect life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relational culture and hierarchical culture factor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life satisfaction. This means that the higher the activity-oriented and learning-oriented factors, which are the sub-factors of the writers'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development culture and rational culture, which are sub-factors of organizational culture, the higher the life satisfaction. This study may be considered to be basic data for preparing a plan for enhancing the satisfaction of Muninwha writers' life.

**Keywords** : Mun In Wha Artist,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Organizational Culture, Satisfaction With Life, Activity-Oriented

본 논문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Hyunjoon Lee(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email: uj2288@hanmail.net

Received May 4, 2021

Accepted July 2, 2021

Revised June 9, 2021

Published July 31, 2021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는 산업과 과학의 발달을 통해 풍요와 편리함을 영위하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와 급변하는 상황과 문제로 고통 중에 있다. 따라서 삶의 만족과 안정감, 여유를 찾기 위하여 치유의 개념으로 예술적인 작품 활동 부분에 중요성과 활성화를 추구한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적 삶을 통해서 예술로 승화하는 문인화 작가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문인화 작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문인들에게 알려진 회화란 그들의 인격도야, 학식의 축적과 사상 등의 정신이 화지에 표현화 되어 진 것을 말하며, 문인화 작가는 회화 이념에서 보면 그 대상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통해서 작가의 표현하는 정신을 중요시 했으므로 문인 산수화는 동양회화 정신의 그 중심에 있는 회화 양식으로 표현하는 작가를 말한다. 또한 조선 후에서는 우리의 산천이라는 일관성 있는 주제를 통해 중국의 산수화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기법, 철학으로 진경 산수화를 그렸으며, 남종화의 적극적인 수용, 창작으로 조선후기의 문인화 보급에 큰 역할을 나타냈다. 따라서 조선의 문인 산수화는 정선과 강세황을 통해 특성의 일면을 확인 할 수 있다[1]. 이와 같이 작품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문인화 작가의 예술문화 활동 참여동기는 중요한 변인으로 대두된다.

참여동기란 교육활동에 참가하는 자는 본인 자체가 교육에 참가하는 동기가 있으며, 참여자의 동기는 내적, 외적 동기로 분류된다고 하였으며[2], 인간의 행동에서 어떠한 곳에 참여하는 동기란 '행동이 발생하는 근원적인 것을 설명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 인간의 방향, 강도, 지속성에 관하여 문제를 설명하려는 심리학적인 개념'이다[3]. 이와 같이 문인화 작가들의 예술문화 활동의 참여동기에 대한 국외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움직인다'라는 개념의 라틴어 'movere'에서 유래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인간의 행동 계기를 활성화하고, 지속하거나 제지시키는 행동의 근원적인 것'을 말한다[4]. 즉 문인화 작가에게는 유기체를 각성시키고 목표를 향하여 행동을 이끌어 가려는 내적인 요구, 욕구로 인간의 성격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활성화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조직화 하려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5]. 이는 문인화 작가의 참여동기를 목표지향적과 활동, 학습 지향적

참여동기로 구분하였으며, 이 세 가지 학습동기 유형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학습동기에서 가장 먼저 중요시되거나 그 중에 두, 세 유형이 서로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6].

또한 문인화 작가의 예술문화 활동 참여동기와 함께 관계된 변인으로는 문인화 작가의 삶의 만족에 대하여 살펴보면 삶의 만족이란 자신이 구성하고 있는 활동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조적인 생활의 목적과 성취, 긍정적인 자기감 형성을 통한 자기가치와 낙천적인 감정의 태도를 유지하려는 것을 말한다[7]. 따라서 문인화 작가의 작품 활동으로 인한 경제나 삶의 풍요로움이 커지는 것은 아니나 삶의 만족은 '자신의 일생에 대하여 만족과 환경의 수용으로부터 인생 전체의 삶을 위해 필요함, 욕구 충족을 의미'한다[8]. 국내의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인생의 본질을 개인, 집단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경험하는 개인의 만족, 평안함 그리고 좌절, 실망감을 평등하게 창조하는 개념이며[9], 과거와 현재, 미래에 살아가야 할 삶의 활동에 대하여 긍정이나 부정이라고 할 수 있다[10].

또한 문인화 작가의 참여동기와 삶의 만족과 함께 대두하는 조직 문화는 중요한 변인으로 살펴보면 문인화 작가가 소속한 조직문화란 '조직 구성원들이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해석, 행위를 불러들이는 조직 내의 공유된 정신적인 가치로 환경을 해석, 적응하는 방식을 학습하는데 준거적인 필요한 틀을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한다[11]. 문인화 작가는 '구성원들의 공유가치, 신념이며, 사회적 접촉체로 언급하는 것으로 조직문화를 구성원의 행동 패턴과 연결시킨 것'이라고 한다[12]. 이는 한 조직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과 신념 또는 여념, 관습, 지식과 전통, 기준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13]. 따라서 문인화 작가의 예술문화활동의 참여동기와 조직문화가 문인화 작가의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문인화 작가의 참여동기, 조직 문화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문인화 작가의 활동에 대한 연구는 일부 진행되었지만 문인화 작가 삶의 만족에 대한 개인 변인과 참여동기, 직무만족에 대한 변인과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인화 작가들의 참여동기, 조직문화, 삶의 만족과의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문인화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삶의 만족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문인화 작가의 참여동기, 조직문화, 삶의 만족과의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인화 작가의 참여동기는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문인화 작가의 조직문화는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03월 10일부터 2020년 05월 30일까지 서울시의 문인화 작가 1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전에 연구대상자에게 설문 취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자료 총 120부의 자료를 수집한 후 연구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설문지 3부를 제외한 117부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5문항, 참여동기 25문항, 조직문화 20문항, 삶의 만족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사회학적으로 관한 내용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건강만족도, 가족형태 등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문인화 작가의 참여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조혜경[14]이 사용한 참여동기의 측정도구는 하위요인 활동지향 8문항, 학습지향 6문항, 목표지향 5문항 총 19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조직문화를 측정하기 위해 광미경[15]이 사용한 조직문화의 측정도구는 하위요인 관계문화 3문항, 개발문화 수용 3문항, 위계문화 3문항, 합리문화 3문항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인화 작가의 삶의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김원희[16]가 사용한 삶의 만족 측정도구 15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2.3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각 변수의 신뢰도 검증결과, 참여동기의 전체 신뢰도는 .759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참여동기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활동지향 동기 .657, 학

습지향 동기 .696, 목표지향 동기 .684의 신뢰도를 보였다. 조직문화의 전체 신뢰도는 .744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으며,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관계문화 .637, 개발문화 .679, 위계문화 .724, 합리문화 .680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삶의 만족의 신뢰도는 .733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값이 최소한의 수준인 .60이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주요 변수의 신뢰도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Reliability of key variables

Classification		Number of questions	Cronbach $\alpha$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Activity-oriented	8	.657	.759
	Learning orientation	6	.696	
	Goal orientation	5	.684	
Organizational culture	Relationship culture	3	.637	.744
	Development culture	3	.679	
	Hierarchical culture	3	.724	
	Rational culture	3	.680	
Satisfaction with Life		15	.733	

### 2.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고, 각 연구도구의 신뢰도 산출은 Cronbach's  $\alpha$ 의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알아보았으며, 연구 대상의 참여동기, 조직문화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자 49명(41.9%), 여자 68명(58.1%)으로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30~39세가 32명(27.4%)으로 가장 많았고, 40~49세가 29명(24.8%), 50~59세가 28명(23.9%), 60세 이상이 18명(15.4%), 30세 미만이 10명(8.5%)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를 살펴보면, 기혼이 92명(78.6%)으로 미혼 25명(21.4%)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만족도는 대체로 만족이 61명(52.1%)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보통이 22명(18.8%), 매우 만족 18명(15.4%), 대체로 불만족 15명(12.8%) 순으로 대부분 건강만족도는 보통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가족형태를 살펴보면, 시부모+부부+자녀가 59명(50.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자녀가 25명(21.4%), 부부 21명(17.9%), 기타 9명(7.7%), 시부모+부부+자녀가 3명(2.6%)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Total(N=117)	
		Frequency	Ratio(%)
Sex	Male	49	41.9
	Female	68	58.1
Age	Under 30	10	8.5
	30-39	32	27.4
	40-49	29	24.8
	50-59	28	23.9
	Over 60	18	15.4
Marital status	Married	92	78.6
	Single	25	21.4
Health satisfaction	Very satisfied	18	15.4
	Generally satisfied	61	52.1
	Moderate	22	18.8
	Mostly dissatisfied	15	12.8
	Very unsatisfied	1	.9
Family form	Couple	21	17.9
	Couple + children	25	21.4
	Parent-in-law + Couple	59	50.4
	Parent-in-law + Couple + Children	3	2.6
	Etc	9	7.7

### 3.2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문인화 작가의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참여동기 요인에 대한 전체 점수는 M=3.71로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조직문화 요인의 전체 점수는 M=3.52로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 요인 또한 전체 점수는 M=3.38로 평균점수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대상의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n major variables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117	2.22	5.00	3.71	.51
Organizational culture	117	2.50	5.00	3.52	.45
Life satisfaction	117	2.53	5.00	3.38	.45

### 3.3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문인화 작가의 참여동기, 조직문화, 삶의 만족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참여동기와 조직문화는 다소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r=.576, p<.01$ ). 참여동기와 삶의 만족 또한 다소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r=.464, p<.01$ ). 그리고 조직문화와 삶의 만족은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r=.490, p<.01$ ). 이러한 결과는 각 상관계수 값이 통계적 유의 수준 하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성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Classification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Organizational culture	Life satisfaction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1		
Organizational culture	.576**	1	
Life satisfaction	.464**	.490**	1

\*\* $p<.01$

### 3.4 참여동기, 조직문화, 삶의 만족의 관계

#### 3.4.1 참여동기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문인화 작가의 참여동기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삶의 만족에 대한 참여 동기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값이 .265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26.5%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1.777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 $F=13.584, p<.000$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동기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

을 살펴보면, 활동지향( $\beta=.333, p<.01$ ), 학습지향( $\beta=.286, p<.01$ ) 요인은 삶의 만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참여동기의 하위 요인인 목표지향( $\beta=-.048, p>.05$ ) 요인은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인화 작가의 참여동기 하위요인인 활동지향과 학습지향 요인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인화 작가의 참여동기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The Influence of Participation Motivation on Life 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normal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t/p	Tolerance limit
		B	Standard error	$\beta$		
Life satisfaction	Constant	1.640	.281		5.844***	
	Activity-oriented	.288	.090	.333	3.202**	.602
	Learning orientation	.202	.070	.286	2.892**	.663
	Goal orientation	-.031	.065	-.048	-.473	.635

\*\*p<.01, \*\*\*p<.001

### 3.4.2 조직문화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문인화 작가의 조직문화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삶의 만족에 대한 조직문화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값이 .298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29.8%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1.883으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 $F=11.897, p<.000$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문화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개발문화( $\beta=.353, p<.01$ ), 합리문화( $\beta=.187, p<.05$ )은 삶의 만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직문화의 하위요인 관계문화( $\beta=.110, p>.05$ ), 위계문화( $\beta=.050, p>.05$ ) 요인은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인화 작가의 조직문화 하위요인인 개발문화, 합리문화 요인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인화 작가의 조직문화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life 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normal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t/p	Tolerance limit
		B	Standard error	$\beta$		
Life satisfaction	Constant	1.693	.280		6.038***	
	Relationship culture	.075	.065	.110	1.164	.699
	Development culture	.242	.070	.353	3.461**	.601
	Hierarchical culture	.028	.046	.050	.616	.959
	Rational culture	.128	.064	.187	2.004*	.717

\*p<.05, \*\*p<.01, \*\*\*p<.001

##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문인화 작가의 참여동기, 조직문화, 삶의 만족과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인화 작가의 참여동기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참여동기의 하위요인인 활동지향, 학습지향 요인은 삶의 만족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참여동기의 하위요인인 목표지향 요인은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인화 작가의 참여동기 하위요인인 활동지향과 학습지향 요인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문인화 작가가 지각한 조직문화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조직문화의 하위요인인 개발문화, 합리문화 요인은 삶의 만족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직문화의 하위요인 관계문화, 위계문화 요인은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인화 작가의 조직문화 하위요인인 개발문화, 합리문화 요인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4]에서 참여동기[5]를 통해 제시한 변인이 삶의 만족[9]과 조직문화[13]를 통해 선행연구결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차적으로 최근 문인화 작가에게 크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참여동기이며, 연구의 쟁점으로 제시하였다 [5,6]. 문인화 작가의 참여동기는 행동 제기를 활성화 시

키고 지속하려는 것과 연계성이 있으며, 조직문화와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는 구성원의 공유가치 등을 조직구성원과 공유하려는 것으로 영향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11,12]. 위와 같이 높은 삶의 질을 느끼는 삶의 만족과 삶에 긍정적 영향을 입히는 참여동기가 개인, 문인화 작가, 가족뿐만 아니라 특히 문인화 작가의 소속된 조직이라는 공동체에서 일체감, 소속감, 충실성을 가지는 조직문화야말로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에서 살펴보면 본 연구는 조사, 지역 및 조사 대상 방법의 한계가 있으며, 제한점이 있으므로 표본지역 확대와 비교 집단 간 연구로 폭 넓고 구체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문인화 작가의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문인화 작가들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콘텐츠 연구로 행복한 직무수행에 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형성하는데 활용할 것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문인화 작가의 삶의 만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실천적 개입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1] N. N. Lee, *A study on the origin of the literary painting and the formation of the modern Yeungnam literary painting school*,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The Keimyung University, pp.5-12, 2010.
- [2] J. W. Choi, *The relationships among participation motives,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exercise adherence of sport participants*,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The Korea University, pp.7-9, 2010.
- [3] J. S. Kim, K. W. Kim, H. H. Ko, Introduction to Sports Psychology, p.270, Seoul: Sunil Cultural History, 1986, p.97-148
- [4] Frost, Reuben B , Sims, Edward J, Development of human values through sports, p.96, Washington : Americ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and Recreation, 1974.
- [5] R. G. M. Morris, "Spatial localization does not require the presence of local cues", *Learning and Motivation*, Vol.12, No.2, pp.239-260, May 1981.  
DOI: [https://doi.org/10.1016/0023-9690\(81\)90020-5](https://doi.org/10.1016/0023-9690(81)90020-5)
- [6] D. S. Kwon, A. Jo, Adult learning & counseling, p.382, Seoul: Kyoyookbook, 2001, pp.31-46.
- [7] Bernice L. Neugarten, Ph.D., Robert J. Havighurst, Ph.D., Sheldon S. Tobin, M.A.,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Vol.16, No.2, pp.134-143, 1961.  
DOI: <http://dx.doi.org/10.1093/geronj/16.2.134>
- [8] Sonja Lyubomirsky, Regina C. Casper, Lorie Sousa, "What Triggers Abnormal Eating in Bulimic and Nonbulimic Women?:The Role of Dissociative Experiences, Negative Affect, and Psychopatholog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Vol.25, No.3, pp.223-232, 2001.  
DOI: <http://dx.doi.org/10.1111/1471-6402.00023>
- [9] T. H. Kim, H. S. Han, "The Study of Conflict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10, No.1, pp.87-104, 1990.
- [10] Y. J. Cho, "The Moderating Effect of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Qual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to Senior Welfare Center", *Locality and Globality*, Vol.39, No.3, pp.193-221, 2015.  
DOI: <http://dx.doi.org/10.33071/ssricb.39.3.201512.193>
- [11] Pettigrew, J. D. "Bincular visual processing in the owl's telencephal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s*, Vol.204, No.1157, pp.435-454, 1979.  
DOI: <https://doi.org/10.1098/rspb.1979.0038>
- [12] Linda Smircich, "Concepts of Culture and Organizational Analysi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28, No.3, pp.339-358, Sep. 1983.  
DOI: <https://doi.org/10.2307/2392246>
- [13] G. S. Park, *A Study on the Organizational Culture Affecting the Internal Service Quality and the Customer Orientation*,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pp.12-16, 2020.
- [14] Hea-kyoung Cho, *The effects of the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in psychological counseling education of middle-aged women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family strengths*, Ph.D dissertation,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Seoul, Korea, pp.50-53, 2019.
- [15] M. K. Kwak, *Effect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culture of elderly and disabled welfare facility workers on their intent to stay*,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Dongbang Culture University, pp.58-62, 2018.
- [16] W. H. Kim, *A Study on the Related Variables Influencing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people : Focused on Personality Traits, Family Support, Psychological well-being*,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Dongbang Culture University, pp.49-59, 2018.

이 현 주(Hyunjoo Lee)

[정회원]



- 1970년 2월 : 동아대학교 문리대학 학사졸업
- 1974년 2월 : 동아대학교 문리대학 석사졸업
- 1987년 2월 ~ 2009년 2월 : 홍익대학교 미교원수료
- 2001년 2월 :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과정 수료
- 2003년 6월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 대상수상
- 2005년 2월 : 서울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미술학석사졸업
- 2019년 3월 ~ 현재 :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 콘텐츠학과 박사과정 재학
- 2004년 1월 ~ 현재 : 한국 미술협회회원 및 초대작가
- 2012년 4월 ~ 현재 :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다수 심사위원 역임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작품소장

<관심분야>

문화예술교육콘텐츠